2026년 1월 19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 KIWOOM WEEKLY

## 랠리 이후 상반된 투자 심리의 충돌

한국 증시는 1) 트럼프발 불확실성, 2) 미국의 11월 PCE 물가, 1월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3) BOJ 통화정책회의 이후 환율 변화, 4) 인텔, 넷플릭스, 찰스슈왑 등 미국 기업 실적, 5)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기업 실적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4,730~4,950pt).

지난 금요일 미국 마이크론의 신고가 경신이라는 호재도 있는 만큼, 이번주 코스피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4,900pt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다만, "단기 폭등에 따른 속도 부담 vs FOMO 현상 확산" 등 상반된 투자심리가 충돌하면서 눈치보기 장세가 중간중간 출현할 수 있음에 유의. 또 주 중반 이후 인텔, 삼성전기 등 테크주 실적,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주의 실적 이벤트도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 이들 실적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반도체 -> 바이오와 같은 소외주 혹은 조선, 방산, 자동차 등 여타 주도주"로의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대응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

|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 Market/ESG 이성훈
shl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월 16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이란, 그린란드 등 트럼프발 지정학적 노이즈에도 불구하고 고객예탁금 90조원 상회하는 등 풍부한 유동성 여건에 힘입어 반도체 외 조선, 방산, 원전, 건설 등 산업재로 상승 업종 확산된 결과 양 지수는 상승 마감 (KOSPI +5.55%, KOSDAQ +0.7%)

주 초반 국내 증시는 파월 연준의장에 대한 연방 검찰 수사 소식이 장중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했음에도, 직전주 금요일 발표된 양호한 고용지표(실업률 4.4%, 비농업 고용 5.0만 명), 트럼프 2,000억 달러 모기지 채권 매입 등이 매크로 불확실성을 완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 매크로 장세보다는 산업별 호재에 주목하는 펀더멘털 장세가 연초 이후 지속되는 가운데 국내 증시 내 조선, 건설, 원전 등 시클리컬주로 매수세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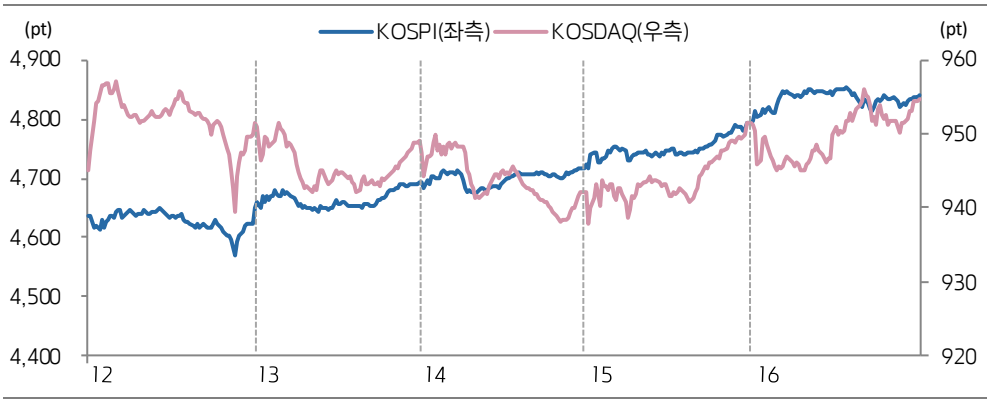
한편, 연초 이후 트럼프 행정부 관련 정치, 관세, 지정학적 노이즈(그린란드, 이란 이슈, 트럼프 상호관세 대법원 판결 등)이 글로벌 증시 변동성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에도 매크로 이슈는 국내 증시에 크게 영향을 주지 못하는 모습. 12월 CPI(YoY 기준 헤드라인 2.7% vs 컨센 2.7%, 코어 2.6% vs 컨센 2.7%) 수치도 중립 이상 결과 나온 가운데 시장은 이를 무난하게 소화하는 모습. 매크로가 안정된 흐름 이어가는 가운데 코스피 지수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실적 전망치 상향에 기반하여 연일 신고가를 경신.

고객 예탁금이 90조원을 상회하며 주식시장 내 유동성 여건도 국내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하고 있는 흐름. 연초 대형주에 편중되었던 외국인 수급도 조선, 상사 및 자본재, 건설, 건축, 철강, 소프트웨어 등으로 분산됨에 따라 일부 대형주 쏠림 현상 완화되며 상승 업종 확산되는 흐름.

업종별로 건설(+17.44%), 금속(+14.08%), 증권(+10.03%), 전기/가스(+9.42%), 기계/장비(+8.28%)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부동산(-0.23%), 제약(+0.32%), IT 서비스(+0.3200001%), 종이/목재(+0.56%), 비금속(+0.61%)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2,265억원)은 기계/장비(+6,033억원), 금융(+4,572억원), 화학(+2,695억원), 건설(+2,062억원) 순으로 순매수, 기관(+3조 1,858억원)은 제조(+30,548억원), 전기/전자(+24,511억원), 금속(+2,709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 | | 국가 | 경제지표 | 대상 | 전망치 | 이전치 |
|---|---|---|---|---|---|---|
| 1 월 19 일 | 월 | 중국 | **산업생산 (YoY)** | 12 월 | 5.0% | 4.8% |
| | | | **소매판매 (YoY)** | 12 월 | 1.0% | 1.3% |
| | | | **고정자산투자 (YTD YoY)** | 12 월 | -3.1% | -2.6% |
| | | | **경제성장률 (YoY)** | 4 분기 | 4.5% | 4.8% |
| | | 휴장 | **미국 (마틴 루터 킹 데이)** | | | |
| | | 회의 | **WEF 연간 회의 (~23 일)** | | | |
| 1 월 20 일 | 화 | 유로존 | ZEW 서베이 예상 | 1 월 | - | 33.7 |
| | | 한국 | PPI (YoY) | 12 월 | - | 1.9% |
| 1 월 21 일 | 수 | 한국 | 수출 (~20 일까지, YoY) | 1 월 | - | 6.8% |
| | | | 수입 (~20 일까지, YoY) | 1 월 | - | 0.7% |
| | | 실적 | **넷플릭스, 존슨앤존슨, 찰스슈왑** | | | |
| | | | **삼성바이오로직스** | | | |
| 1 월 22 일 | 목 | 한국 | **경제성장률 (QoQ, 잠정)** | 4 분기 | - | 1.3% |
| | | 미국 | **경제성장률 (QoQ, 잠정)** | 3 분기 | 4.3% | 3.8%(4.3%) |
| | | | **PCE 물가지수 (MoM)** | 11 월 | 0.2% | 0.3% |
| | | | **PCE 근원 물가지수 (MoM)** | 11 월 | 0.2% | 0.2% |
| | | | **PCE 물가지수 (YoY)** | 11 월 | 2.7% | 2.8% |
| | | | **PCE 근원 물가지수 (YoY)** | 11 월 | 2.8% | 2.8% |
| | | | 개인 소득 (MoM) | 11 월 | 0.4% | 0.4% |
| | | | 개인 소비지출 (MoM) | 1 월 | 0.5% | 0.4% |
| | | 회의 | **BOJ 통화정책회의 (~23 일)** | 1 월 | 0.8% | 0.8% |
| | | 실적 | **프록터앤갬블, GE 에어로스페이스** | | | |
| 1 월 23 일 | 금 | 미국 | S&P 제조업 PMI (잠정) | 1 월 | 52.0 | 51.8 |
| | | | S&P 서비스업 PMI (잠정) | 1 월 | 52.8 | 52.5 |
| | | | **미시간 소비자신뢰지수 (최종)** | 1 월 | 54.0 | 52.9(54.0) |
| | | | **미시간 소비자기대지수 (최종)** | 1 월 | - | 54.6(55.0) |
| | | | **미시간 1 년 기대인플레이션 (최종)** | 1 월 | - | 4.2%(4.2%) |
| | | 일본 | CPI (YoY) | 12 월 | 2.2% | 2.9% |
| | | | 근원 CPI (YoY) | 12 월 | 2.5% | 3.0% |
| | | 실적 | **인텔** | | | |
| | | | **삼성전기** | | | |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2. 한국 증시 전망

한국 증시는 1) 트럼프발 불확실성, 2) 미국의 11월 PCE 물가, 1월 미시간대 기대인플레이션, 3) BOJ 통화정책회의 이후 환율 변화, 4) 인텔, 넷플릭스, 찰스슈왑 등 미국 기업 실적, 5) 삼성전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국내 기업 실적 등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4,730~4,950pt).

16일(금) 미국 증시는 마이크론(+7.8%) 등 메모리 슈퍼사이클 기대감 지속에 따른 반도체주 강세에도, 차기 연준 의장 불확실성, 미 정부의 전기 요금 규제 우려 등으로 약보합 마감(다우 -0.2%, S&P500 -0.1%, 나스닥 -0.1%).

이날 미국 증시의 취약함을 제공한 것은 미 10년물 금리의 4.2%대 돌파 소식이었으며, 연준 불확실성 재확대에서 기인. 트럼프가 케빈 해싯 위원장이 현직에 남아 있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차기 연준 의장의 경쟁 구도가 복잡해졌기 때문. 최근까지도 시장에서는 비둘기파 성향의 해싯 위원장이 유력 1순위 후보로 거론됐으나, 트럼프의 발언 이후 매파 성향인 케빈 워시 전 연준이사가 1순위 후보로 바뀐 상태(Poly Market에서 케빈 워시의 차기 연준 의장 확률은 44%에서 56%로 상승, 케빈 해싯 위원장의 확률은 36%에서 18%로 하락).

케빈 워시가 차기 연준 의장으로 임명 시 연준의 통화정책은 예상보다 덜 완화적인 쪽으로 노선이 변경될 수 있음. 누가 지명되든 간에 연준의 독립성 논란 역시 쉽게 해소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도 또 다른 고민거리. 하지만 연준은 궁극적으로 데이터 의존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주체이며, 독립성 문제는 트럼프의 지지율 약화를 초래할 수 있음을 감안 시, 차기 연준 의장 불확실성은 단기적인 노이즈에 국한될 것으로 판단.

주말 중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파병을 한 유럽 8개국에게 2월 1일부터 1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 엄포를 놓은 점도 부담 요인.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은 골든돔 체계 구축, 희토류, 석유 등 자원확보를 통한 미국의 패권 강화 의지가 내포되어 있으나, 국제법상 제약, 미국 의회 및 여론 반발 등을 고려 시 그 현실화 가능성은 낮게 가져가는 것이 타당.

이를 감안 시, 주중 트럼프발 불확실성이 연초 이후 주가 강세에 대한 차익실현의 빌미로 작용할 소지가 있음. 다만, 노이즈성 재료에 한정될 것이며, 4분기 실적시즌 모멘텀도 유효한 만큼, 증시 방향성은 훼손시키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전략의 중심으로 설정해 놓을 필요.

그 외 매크로 측면에서는 BOJ 회의도 관전 포인트. 사실 이번 회의에서는 기준금리 동결 전망이 우세한 만큼, 이보다는 최근 160엔대 부근까지 도달한 엔화 약세에 대한 BOJ의 입장 변화가 더 중요할 전망. 최근 재차 1,470원대 이상으로 급등한 달러/원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 중에 엔화 약세도 한몫하고 있는 만큼, BOJ 회의 이후 엔화 향방도 주시하는 것이 적절.

한편, 현재 코스피는 연초 이후 하루도 빠짐없이 오르면서 역대급 속도로 4,800pt를 돌파한 상황(11거래일 연속 강세, 역대 최장기간 강세는 13거래일). 수익률 측면에서도 마찬가지로, 1월 중순 현재까지 +14.9%로 2000년 이후 역대 4위의 상승률을 경신(1위: 2001년 1월 +22.5%, 2위: 2025년 10월 +20.0%, 3위: 2001년 11월 +19.7%, 5위: 2020년 11월 +14.3%).

고객 예탁금도 90조원대를 넘나드는 등 유동성 여건도 풍부하다 보니, 상징적인 레벨인 5,000pt 돌파도 시간의 문제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 중론. 결국, "이익 모멘텀의 견조함 + 낮은 밸류에이션 부담"의 조합은 훼손되지 않는 한, 증시 상승 기조는 유지될 전망.

지난 금요일 미국 마이크론의 신고가 경신이라는 호재도 있는 만큼, 이번주 코스피는 반도체주를 중심으로 4,900pt 진입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 다만, "단기 폭등에 따른 속도 부담 vs FOMO 현상 확산" 등 상반된 투자심리가 충돌하면서 눈치보기 장세가 중간중간 출현할 수 있음에 유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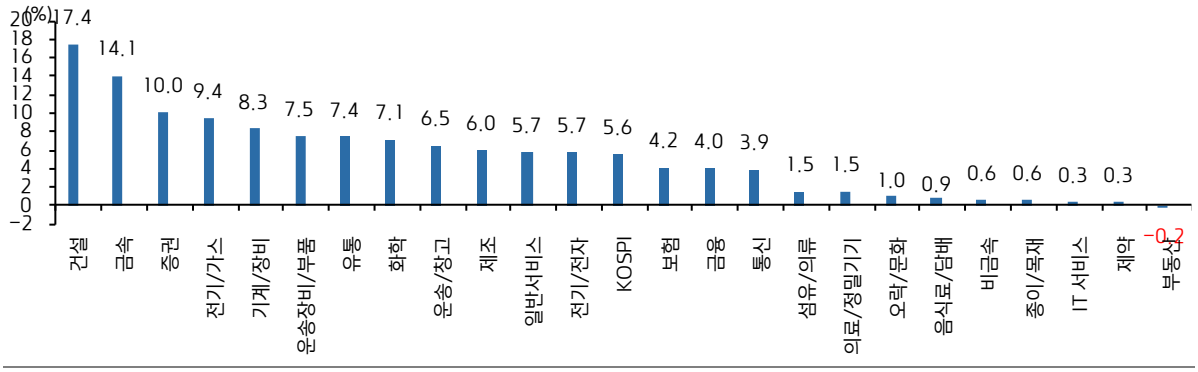
같은 맥락에서, 주 중반 이후 인텔, 삼성전기 등 테크주 실적,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바이오주의 실적 이벤트도 대기하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부분. 이들 실적 이벤트를 치르는 과정에서 "반도체 -> 바이오와 같은 소외주 혹은 조선, 방산, 자동차 등 여타 주도주"로의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대응 전략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 시장 | 종가(pt) | 기간별 수익률 | | | |
|---|---|---|---|---|---|
| | | D-1(%) | D-5(%) | D-20(%) | YTD(%) |
| 코스피 | 4,840.74 | 0.9 | 5.6 | 21.0 | 14.9 |
| 대형주 | 5,104.41 | 1.0 | 5.8 | 24.3 | 16.6 |
| 중형주 | 3,914.96 | 0.1 | 4.6 | 2.3 | 5.2 |
| 소형주 | 2,530.18 | 0.2 | 2.5 | -0.9 | 0.5 |
| 코스피 200 | 704.64 | 1.2 | 5.5 | 25.5 | 16.3 |
| 코스닥 | 954.59 | 0.4 | 0.7 | 4.2 | 3.2 |
| 대형주 | 2,330.45 | 0.9 | 0.3 | 3.3 | 3.5 |
| 중형주 | 927.92 | 0.4 | 1.4 | 7.1 | 3.1 |
| 소형주 | 2,648.33 | -0.5 | 1.7 | 3.7 | 2.9 |
| 코스닥 150 | 1,605.85 | 1.1 | 0.5 | 4.0 | 3.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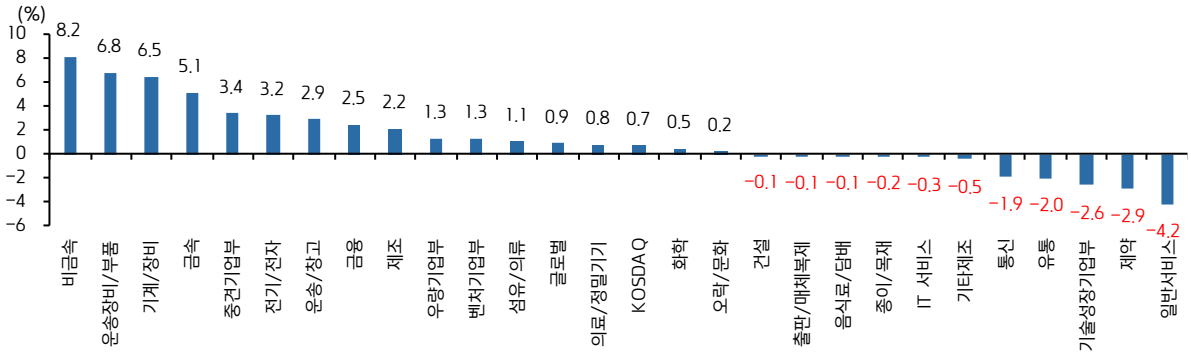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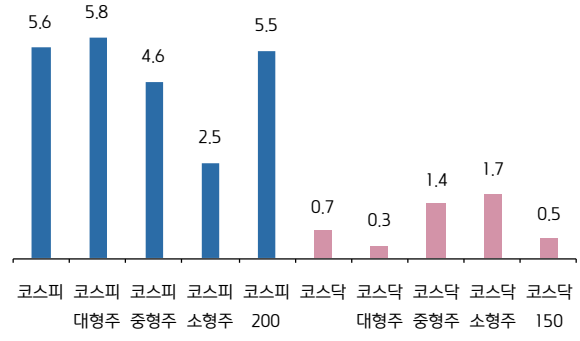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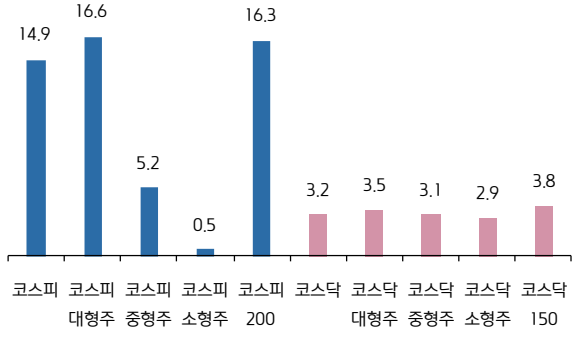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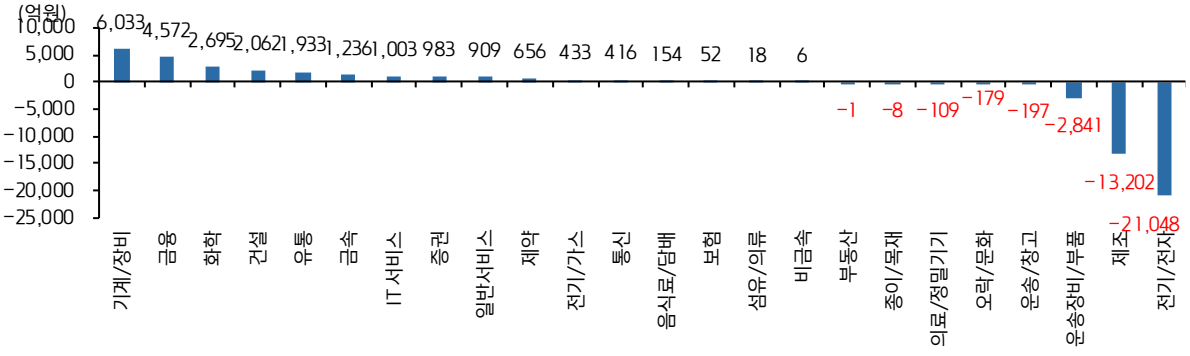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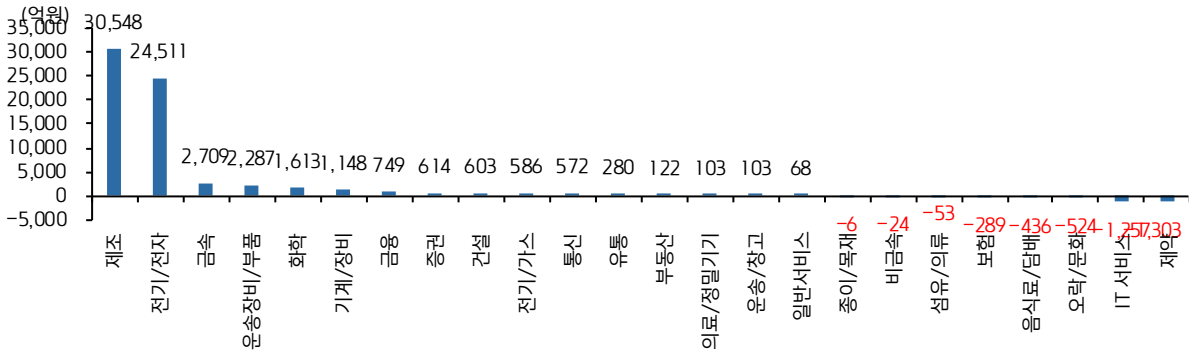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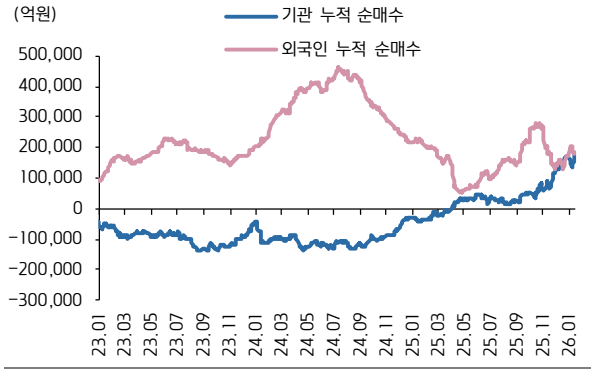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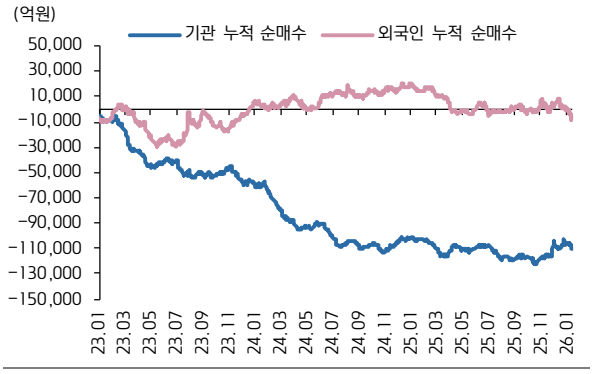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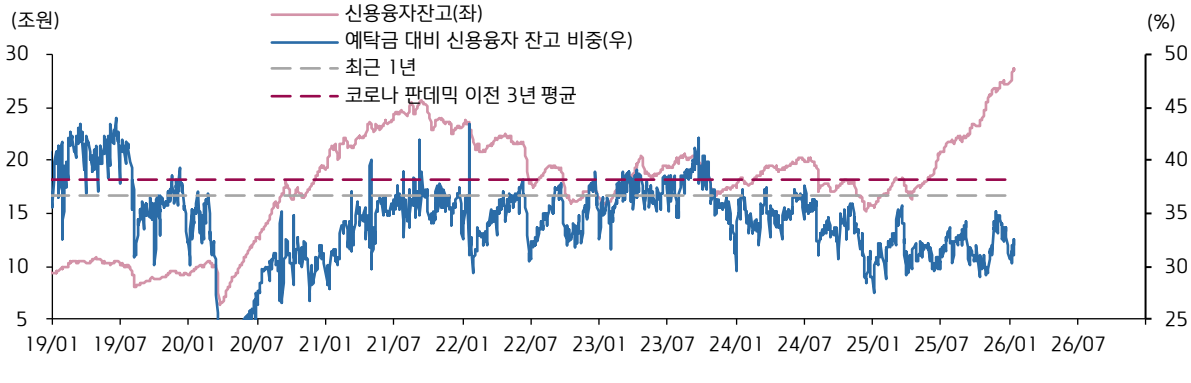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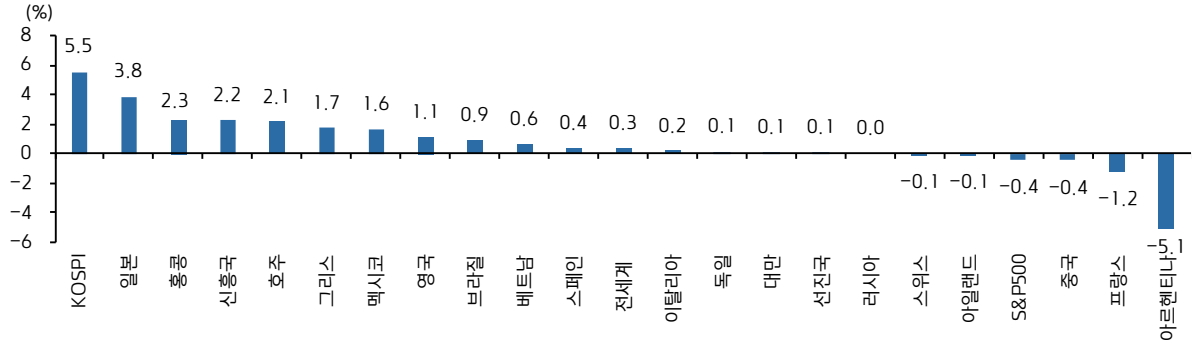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KOSPI+KOSDAQ 신용융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융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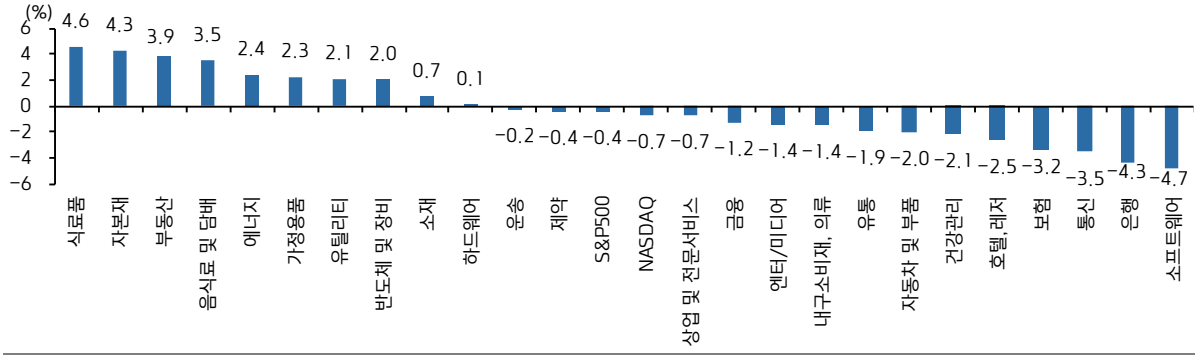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